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4호 【루게 제23431호】 주체100(2011)년 4월 24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철생산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철생산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중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장동지,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지배인 허재물동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룡국동지를 비롯한 기업소의 책임인원들, 함경북도당위원회 비서들인 리희용동지, 엄학진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도의 책임인원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성강의 로동계급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 대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높이 세운 철강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돌격전을 벌리고 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현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철직장, 수직산화배수구단광직장, 고압판직장, 유도로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성강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을 성공시킨 그 기세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는 기세로 높이 솟아올라고 있다.

특히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2009년 12월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산소용융로 1기와 수직산화배수구단광로를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강철생산을 대폭 늘이고 그 질을 훨씬



높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철용광로에서 폭포지며 쏟아져내리는 붉은 쇠물을 보시고 주체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주체철생산체제의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는 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주체철생산체제가 확립되고 기술개건사업이 심화된 결과 기업소의 구조와 생산

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 펼쳐진 이 자랑스러운 현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증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십년동안의 고심어린 투쟁속에서 금속공업의 주체화가 빛나게 실현되게 되것은 우리의 공업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특대형의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주체화는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

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에서 당의 과학기술증시사상의 요구대로 기술혁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딛으로써 철강생산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제강소의 경험은 생산장성의 기본열쇠는 기술적진보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진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재능으로 생산을 정상화하며 더 높은 과학기술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린 결과 생산장성의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렇처럼 두뇌전, 기술전을 힘차게 벌린다면 짧은 기간에 세계를 뒤흔들고 올라설수 있으며 주체공업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최첨단돌파의 포성으로 적들의 과학기술적봉쇄를 짓궂게버리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으로 심장을 뚫어는 로동계급과 지식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로대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나라의 공업화수준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도약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강력한 힘이 있기에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은 확고히 담보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는 데 적극적 이바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구호인 자력갱생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영원히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필승의 보검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철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강철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해서는 이미 마련된 주체철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새로운 능력조성을 위한 목표를 더 높이 통이 크게 세우고 그 사업을 근거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는것은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이룩하기 위한 더없이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가장 귀중한 물질적유산은 대대손손 제당에서 제힘으로 살아나갈수 있는 주체화된 경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철생산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공정들을 높은 과학기술적도태에 올려세우며 그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강화하여 생산을 부단히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주체철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해서는련관된 부분들에서 질 좋은 정광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공업은 질 좋은 철강재를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강재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해서는 주체철생산체계의 전면적실현과 함께 연속조괴기에 의한 강철생산공정, 무연탄에 의한 직접소용불탄공정을 비롯한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기업소에서 대담하게 작전하고 힘있게 추진하고있는 능력확장공사는 매우 어렵고 방대하지만 주체철생산의 선구자들인 성강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풀이 있는 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오늘의 최후돌격전에서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의 기수들인 일군들은 당정책을 지지만 하는것이 아니라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실천가, 당에서 준 과업을 가장 훌륭하고 성실하게, 가장 진실하고 완벽하게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령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성강로동계급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 비등된 열의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오리목장을 돌아보시면서 기업소의 후방사업정형을

로해하시였다.

기업소에서는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이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로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후방공급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기업소에서는 전문오리목장에 못지 않은 오리목장을 잘 꾸리고 사료보장체계를 세워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오리와 폐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많은 고기를 생산하여 로동자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을 비롯한 기업소의 모든 일이 잘되고있는것은 든든한 후방사업의 안받침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의 주인인 로동자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후방사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약하게 노력하고있는 기업소의 당 및 행정일군들의 수고를 다시금 높이 지하시였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있는 우리의 로동계급이야

말로 시대를 개척하고 변혁하는 위대한 선구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견결한 혁명의 전위부대인 영웅적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축성과 사회주의건설에 거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성강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당이 준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기업소의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범활영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내는 영웅적인민이며 자기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사소한 담보도 모르는 백철불굴의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인민들이 만복을 누릴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세계 앞에 파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종대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당의 강령과도 같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철석같은 각오를 안고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병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림으로써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자고 다시금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을 사랑의 한몸에 안으시여 위훈의 창조자, 시대의 영웅으로 세워주시고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명마루에 승리의 붉은기를 선함으로 휘날려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주체철생산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철생산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장건 79화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장인 손연봉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2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일본 사이후꾸지 범주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장건 79화에 즈음하여 이계구찌 에강 일본 사이후꾸지 범주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가 2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4 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타이에서는 토론회와 영화감상회가, 폴스카에서는 집회와 영화감상회가, 로니아에서는 강연회가 최근에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태양절기념 및 2.16 경축 타이준비위원회,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타이조선친선협회, 타이라자바드 프라나존총합대학, 폴스카공산당, 인민군동맹, 폴스카조선협회, 로니아근로자협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로니아지방부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담》이 상영되었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쉘리트 풀만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린 신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한 간직되어있다고 하면서 다 소중하고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나라, 모든것이 안정되어있는 조선과 같은 나라는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찾아볼수 없다. 폴스카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유제트 와후트와 폴스카인민군동맹 위원장 로만 오르웁스키는

선군정치로 승리를 떨치시는 강철의 령장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이인 79년이 되어왔다.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인류정치사에 길이 빛날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선군혁명의 년대기에 자랑찬 승리만을 아로새기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대한 국제사회계의 칭송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김정일각하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불공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선군정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가를 현실로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날들은 그이께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와 나라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여 오신 영웅사시로 빛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기념 인도네시아 준비위원회 서기장과 영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마이클 찬트의 심정만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계 말엽 동유럽 나라들에서의 예상치 않았던 사회주의의 좌절을 계기로 오만부패한 미제가 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 갖은 압박과 위협공갈을 일삼으면서 군사적위력으로 제압하고 자기의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횡포하게 행동하고있을 때 그에 위압되고 눌리는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

에 굴복하고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 당하였다. 바로 그 시기 세계사회계는 무비의 담력과 배경, 명활무쌍한 지략,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 무모한 군사적간섭책동을 결음마다 짓부셔주며 주체혁명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의 진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상을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선군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부위원장 유리 와닌은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것만으로도 선군정치로 선군혁명의 믿을만한 참모부로서 강도발정시키고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정치를 실천하였다. 제국주의 자들이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다투고있지만 강철의 령장인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섰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믿을만한 참모부로서 강화발전시키고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정치를 실천하였다. 제국주의 자들이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다투고있지만 강철의 령장인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섰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믿을만한 참모부로서 강화발전시키고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정치를 실천하였다. 제국주의 자들이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다투고있지만 강철의 령장인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섰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믿을만한 참모부로서 강화발전시키고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정치를 실천하였다. 제국주의 자들이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다투고있지만 강철의 령장인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섰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결집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오직 승리의 한길에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고 한 라틴아 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의 말에서도, 《선군은 조선력사에서 전례없는 번영의 새시대를 안아온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조선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게 하는 비약의 기치》이라고 한 만나다총회의 학파학연구소 소장의 토로에서도 위대한 선군혁명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호모심을 읽을수 있다. 유르타에 있는 조선인민들의 편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람위원회 위원장은 도서 《김정일선군정치론》에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현실을 통하여 실증됨으로써 세계전역에서 선군정치지열품이 더욱 싸증자되어 일어나고있다. 선군정치처럼 하나의 정치방식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한 때는 찾아볼수 없다. 선군조선이 있어 행성위에 자주 위업승리의 기쁨이 펼쳐질 때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라고 썼다. 불패의 선군정치로 백승을 펼치시는 강철의 령장인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와 칭송의 순결한 사상감정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날로 더욱 뜨겁게 불분될것이다. 본사기자

선군령도업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뜻깊은 건군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가 우리 각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 선군정치를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당의 선군사상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 단위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내어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그들을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준비시키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대교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있는 격동적인 분위기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화선식으로 실시있게 하고있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

민을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시는 자료들을 연혁 소개실에 비치해놓아 그를 통한 교양 사업을 실효성있게 벌여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범용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리지도로정을 따라가면서 진행되고있는 교양사업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단위에 갖어있는 철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갈 의지로 가슴끓이게 하고있다. 선군령도업적교양을 잘하고있는 단위들속에는 유류관 당조직도 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혁명사적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모든 봉사자들이 철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교육훈련이 어떻게 되어 인민봉사의 전당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는가를 더 잘 알고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하고있다.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각급 당조직들에서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는 선군령도업적교양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로 하여금 선군사상을 부강조건전선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내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벼모판씨뿌리기 본격적인 단계

올해농사에서 대혁신을 일으킬 드높은 결의를 안고 펼쳐나선 각지 농업근로자들이 벼모판씨뿌리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력에 의하면 전국적인 벼모판씨뿌리기실적은 22일 현재 75%를 넘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기야 합니다.》 농업성과 각 도농업부문 일군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벼모판씨뿌리기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하고있다. 서해지구 농촌들에서 씨뿌리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이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통천군과 동림군, 선천군, 박천군, 파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씨뿌리기를 제철

